

지역 소식통

정읍시, 제1회 시민정원사  
이정화 회장 감사패 수여

정읍시는 투철한 봉사 정신과 자연보호에 대한 열정으로 살기 좋은 녹색 도시 만들기에 기여한 제1기 정읍 시민정원사에 19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원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 전지작업 봉사활동과 소규모 정원 조성 관리 등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색을 입은 겨울 정원' 만들기를 주제로 지역 내 조경수에 직접 디자인해 만든 뜨개옷을 입혀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우리 정읍을 녹색 도시로 가꾸는 데 앞장서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향기롭고 아름다운 정원 가득한 정읍 만들기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기 정읍시민정원사 이정화 회장은 "정읍 시민정원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더 많은 시민이 향기로운 정읍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상설시장 내 화장실  
증축·리모델링사업 완공

부안군은 부안상설시장(북쪽) 내 화장실 증축 및 리모델링, 상인쉼터를 최근 완공·개방해 상인 및 이용객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총사업비 4억원으로 부안상설시장 내 화장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으며 상인들의 건강증진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층에 상인쉼터를 함께 신축했다.

특히 화장실을 찾은 이용객은 화장실이 넓어지고 깨끗해져 마치 호텔 화장실처럼 좋다고 호평했으며 상인들 역시 매일 장사로 인해 몸이 많이 힘들었는데 2층에 상인쉼터를 설치해 언제든 쉬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줘 고맙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돼야

유기상 고창군수 "주민들이 겪은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전국원전동맹, 임시총회서 대정부 결의문 만장일치로 채택

고창군 원전주변지역의 불합리한 정부지원에 항의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 등 대정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정미영 부안 급정구청장)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 등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전국원전동맹은 19일 오전 영상회의를 통해 '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된 뒤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회의는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비롯해 유기상 고창군수 등 전국 16개 원전 인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을 통해 "원전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단가가 낮아 국가경제발전엔 큰 기여를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6.4%(인 314만 원전 인근 지역의 국민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지금부터라도 국가 사무인 방사능방재 업무 위태로 인한 사무관리비와 상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난 19일 전국 16개 원전 인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로 '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했다.

이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올해 상반기 중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팩스터 확충(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중단하고 조속히 중간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 설치와 함께 원전 안전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기상 고창군수는 "원전 소재지는 아니지만, 원전 최인접지역으로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고, 방사선 비

상계획구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임박안은 고창군민들은 물론 전국 원전 인접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많은 피해와 불합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여·야가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원전 소재는 물론, 인근의 지자체와도 소통하며 현실적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전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제260회 임시회를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였다.

조상중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8대 후반기 정읍시의회는, 정읍시민 모두가 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하고 일상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읍시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함으로써,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고, 사회, 경제적 페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발전,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필요한 시책과 조례를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 이남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통해, "이용객이 많거나 외진 곳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범죄를 사전 예방할 것을 강조했다. 정상섭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재해별 비상대

책망을 잘 갖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를 통해 시내의 주거지역별로 기존 사회단체를 제설봉사단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학생들에게는 제설에 봉사점수를 부여하는 등 시민이 자발적으로 제설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정상섭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농촌지역을 활용한 경제정책을 준비하자'를 통해, "코로나19 등의 대내외적인 난관에 직면해서 실효성 있는 경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업생산을 높일 수 있는 특화된 농산물 가공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지원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기시재 의원의 대표발의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쳤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전통시장 알리기 앞장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정읍시청 경제환경국 소속 직원들은 19일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는 생고을 시장을 찾아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을 전개하며 안전한 전통시장 홍보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패턴이 비대면으로 변화하면서 대형 또는 온라인 유통업체에 비해 대응이 어려운 전통시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직원들은 상인들과 이용객들에게 KF94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나눠주며 안전한 전통시장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고을시장 상인들을 응원 격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수소산업 플랫폼 구축 박차

부안군, 제2호 수소충전소 건립 국비 15억원 확보  
인프라 확충, 수소연료전지차 21대 민간 보급 예정

부안군은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선주제인(先制制人·먼저 도모하면 능히 이룰 수 있다)'의 마음으로 미래 100년 먹거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민선7기 들어 연료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신성장 패키지 기업 지원사업으로 스타트업 연구소 2곳 유치와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료전지 드론용 파워팩 개발 성공, 제2호 수소충전소 건립을 위한 국기예산 1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정부의 수소법 시행에 맞춰 지난해 11월에 선제적으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수소·연료전지 산업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에는 수소산업 관련 기업을 부안 제3농공단지에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또 연료전지 드론 생산기지 구축, 제1호 수소충전소 완공과 제2호 수소충전소 기본계획 수립으로 수소충전 인



제1호 수소충전소

프라 확충과 함께 수소연료전지차 21대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놓여진 지역에 맞는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서남권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연계한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를 얻는 해상 수전해 설비 구축 등 부안형 수소·연료전지 신규사업 중 '장기 과제사업'으로 추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속 가능한 부안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정읍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운영하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2021년 신규시책 사업으로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이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등 보장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는 인도에서 운행해야 하지만 이용 환경이 불편해 도로변으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그간 사고가 빈번함에도 사고 예방이나 보험제도 등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시는 사고 발생 시 초래되는 갖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

해 각종 사고를 당한 장애인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계층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자다.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며, 보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내용은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대물, 대인)의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시에도 마땅한 보상제도가 없어 경제적 부담을 느꼈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경제적 부담 완화로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